

# 나를 유혹한 그림, 그림에 유혹당한 나, 우리는 열애중

《지독한 아름다움》 김영숙 지음 | 아트북스 | 168쪽 | 값 14,000원

오스트리아의 화가 코코슈가는 알라 말러라는 여인과 이별한 후 그녀와 똑같은 크기의 인형을 제작했다. 인형을 데리고 오페라 공연장에 가고, 인형과 함께 잠들었다는 코코슈가의 이야기만큼 '사랑'의 좌절로 인한 인간의 '파멸'을 보여주는 일례도 드물다. 이처럼 '사랑'으로 인해 행해진 화가의 그림을 걸어놓고 채호기 시인의 <지독한 사랑>을 읽는 이가 있다. 전업주부이자 학생인 김영숙(39) 씨다. '아름다움' 앞에 '지독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인 그의 말을 빌리자면 "아름다움은 온화해서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코코슈가의 사랑처럼 '파괴'의 힘을 포함하고 있기에" 아름답다. '김영숙 아줌마의 도발적 그림읽기'라는 부제를 단 《지독한 아름다움》은 '여성'을 축으로 그림을 설명하되 이같은 '아줌마의 독특한 해석'을 덧붙인 미술교양서다.

"페미니스트라고 걱정하고 일부러 뼈뺏하게 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아도 예전 그림들을 보면 유난히 벗은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남자 화가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했고, 가부장적인 당시 사회풍토도 일조를 했죠."

그는 '남자'가 아닌 '나쁜 남자'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성서에 나오는 수산나의 옷을 벗겨놓은 그림을 통해 남성의 시각을 비판했고, 마그리트의 <강간>을 통해 눈요깃감으로 변질된 여성의 의미를 발견했다. 이 책의 미덕은 아줌마만의 '솔직 대담함'으로 서양명화들을 분방하게 해석했다는 데서 드러난다. 독자

들은 책을 덮은 후 동양 아줌마의 구수한 농담으로 신비를 벗어던진 '서양명화'들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 점의 그림을 앞에 두면서 '추한 것도 포용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프리다 칼로 그림 중에 어머니의 죽음을 전제로 아이가 태어나는 걸 상징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림은 예쁘고 화사하지 않지만 보는 이에게 찡한 무언가를 던져줍니다. 사람들은 이상적인 것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무섭고 흉하고 때로는 추한 것도 포용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죠."

그가 이처럼 '그림'과 '아름다움'을 말하기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대구 시장판에서 어렵게 살아오면서 '미술'에는 관심조차 갖지 못했던 그가 그림과 첫 대면을 한 것은 대학 시절. 그는 학교 앞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옆 건물에 있는 화실을 발견했다.

"그곳의 냄새, 그리다 만 그림,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저를 유혹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림에 다가간 것이 아니라 그림이 나를 유혹한 것이죠. 그러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이주현 씨 책을 비롯해서 대중적인 그림 안내서를 참고하면서 관심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러고보니 토실토실한 몸을 자랑하는 보테르의 인물들, 마네의 <풀밭 위의 식사> 속 벌거벗은 여인 등 '여성'이라는 테마로 본 모든 그림이 그의 연인인 셈이다. 그리고도 모자라 그는 요즘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공부하며 더 많은 연인을



만난다. 전시장의 그림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기르고 싶었고,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에서 작품을 쉽게 설명해주는 다리 역할을 '체대로' 하자는 욕심도 앞섰다. 그러나 요즘은 뒤늦게 시작한 그림공부가 마냥 쉽지만은 않다는 걸 절실히 깨닫는다.

"보기 싫은 그림을 억지로 보라는 말은 안하지만 그림을 보면서 '네가 왜 명환데?'라는 오기가 생기면 도대체 어떤 그림이고, 어떤 맥락을 담고 있는지 한번 찾아 나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제 글을 통해 아이 미술숙제를 돕는 어머니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이들 방학이 다가온다. 곧 곳곳에서 다양한 그림들이 우리를 '유혹'할 것이다. 그 유혹을 '부담스럽게' 생각치 말고 김영숙 아줌마처럼 한번 만나보기라도 하자. 혹 그림과의 연애가 부담이 된다는 이가 있다면 《지독한 아름다움》을 펼치고 선배의 달콤한 연애담부터 들어보기를 권한다. **이은주**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